

민다나오와 술루에서의 미군 개입¹

By Octavio Abbilani Dinampo²

1. 치명적인 유혹

필리핀이 미국으로부터 독립한 때인 1946년 7월 4일로부터 60년이 지난 지금, 민다나오와 술루에 대한 미국의 치명적인 유혹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과거로부터의 회귀”(미군의 개입이 다시 시작된 것을 말함_역자주)는 현재 기만적이고 잔혹한 방식으로 기록에 남겨지고 있다.

1898년 12월 파리협정서에 따라 스페인이 필리핀을 미국에 팔았을 당시, 현재의 민다나오와 술루는 스페인이 정복하려고 했으나 3세기에 걸친 이슬람교도(Moros 라고 지칭됨)들과의 전쟁에서 계속해서 패배함으로써 결국 독립된 국가로 남아있었다. 이런 이유에서 지금 다시 시작되는 미국의 개입은 기만적이다. 한편, 미국의 개입이 잔혹하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이다. 강압적인 식민지배는 이슬람교도들의 끊임없는 도전을 받았는데 1906년 버드 다후와 1913년 버드 박삭에서의 대학살을 정점으로 하는 피의 역사였다고 할 수 있다.

¹ Paper delivered during the Asia-Pacific Peace Consultation in Tokyo, Japan, November 24-28, 2006

² Currently with Civil Society and Mindanao State University, Jolo, 술루

그때나 지금이나, 민다나오 문제는 역사를 바로잡기 위한 이슬람교도들의 끊임없는 저항의 정신으로 이해되고 있다. 현재의 사람들이 1968 년에 일어났던 “자비다 대학살”을 단지 모슬렘 독립국가전선의 창립에 의해 촉발된 것으로 기술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러한 사건이 홀라 방사와 아가마(이슬람의 국가정체성)의 정신이 발현된 것으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현재 필리핀에서 일어나고 있는 독립운동들이 과거에서부터 쭉 이어져 온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아마도 미국은 100 년전과는 전혀 다른 이유에서 또 다시 필리핀으로 돌아온 것이겠지만, 필리핀의 모슬렘들은 아직 아물지 않은 과거의 유산들이 되돌아오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단지 반미의 감정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왜 미국이 그토록 쉽게 불공평한 영토합병의 음모를 묵인했는가에 대한 오래된 기억을 다시 끄집어내는 것이다.

그리고 위의 맥락에서 평화와 발전을 위한 명분으로 민다나오와 술루에서 시행된 발리카탄 합동군사훈련이 대체로 따듯한 환대를 받게 된다. 민중들을 위한 것이라는 잘 포장된 명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군사작전훈련이 천연자원과 석유를 겨냥한 것이라는 의심을 하고 있다.

2. 두 번째 방문

미군이 민다나오와 술루로 돌아온 것에 대한 많은 풍문이 있지만, 가장 신빙성이 있는 지적은, 9-11 테러가 발생한 뒤 시작된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수치상으로는, 필리핀은 탈레반 정권에 대한 공격을 지원하는 “후방부대”의 역할을 하고 있다.

민다나오와 술루는 “후방부대” 역할을 하는 전진기지가 되어버렸는데, 현재 미군 특수부대와 전문훈련부대, 그리고 심리적 선동부대들이 잠봉가 시와 바실란, 그리고 술루 주에 배치되어 있다. 2002 년 6 월부터, 4000 명의 필리핀 군대와 미군은 바실란과 타이-타이, 팔라완, 술루 등지에서 “발리카탄 군사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훈련은 이슬람 무장단체인 아부 사야프(이하 ASG)를 타겟으로 하는 군사훈련으로 간주되고 있다.

ASG 는 아프가니스탄 내에서 러시아의 영향을 밀어내기 위해서 미국 CIA 가 지원하고 훈련시켰던 조직들의 잔여물이라고 할 수 있다. CIA 는 탈레반 정권이 수립될 때까지는 오사마 빈 라덴과 호의적인 관계였다. 그 후 미국이 탈레반 정권에 대한 지원을 거둬들이면서 탈레반 정권과 미국 사이의

관계는 소원해졌으며, 결국 이는 9-11 테러를 낳게 되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은 과거의 동지를 치명적인 적으로 역전시키고 있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국제관계에서의 테러리즘은 그것을 처음 촉발시킨 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미국과 자발적 동맹국들에게 있어 ASG 와 Al-Qaeda 는 둘 다 테러조직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다른이들에게 있어서는 자유 전선/운동일수도 있다. 예를 들어 솔루에서 ASG 에 대한 총력전이 있던 지 몇 년 후 까지도, 이 지역이 역경을 뚫고 나가 완전히 정리될 것이라는 희망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다. 대신, 솔루의 지역분쟁 상황을 미국의 전지구적 테러와의 전쟁과 연결시키려는 조심스러운 시도가 있음을 믿을 수 있는 합리적인 토대가 존재한다.

이러한 합리적인 검색을 알아채기는 미국이 그 어떤 증거도 없이 어이없게도 ASG 를 Al-Qaeda 와 Jemah Islamiya (JI)에 연루시킨 행위에 대한 응보에서 출발하였다. 또한, ASG 수뇌부에 대한 생포나 사살을 위한 도움을 제공하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겉으로 보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 FBI 도 마찬가지이다. 오히려, ASG 나 JI 의 소재를 정확히 알려주고 그 대가로 비밀계좌를 통해 포상금을 받기 위해 올라마나 교사, 학생,

지역정부, 비정부기구와 유사혁명론자들 중에서 미국의 꼭두각시나 협력자를 모집한다.

3. 미국에게 돌아가는 이익

실제로, 미국이 필리핀 무장세력들을 인도주의적 목적에서 훈련시키고 민다나오와 타우수그 사람들에게 의료 행위를 제공하기 위해 갔다고 생각하는 것조차 지성인들에게는 명백한 모욕이다. 전쟁은 스스로 수행하고 의료 훈련 활동은 미군이 전세계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 대리군을 만들기 위한 명백한 시도일 뿐이다. AFP 에게 있어 이는 근대화를 위한 이전의 시도를 지원하기 위해서 미국 군자금으로부터 지원금을 받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 이와 같이, 미군이 AFP 와 섞이는 것에 대한 불이익을 참는 이유가 설명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파티쿨, 인다난, 마임병, 탈리하오(모두 슬루지역)의 지방자치단체들과 미군은 보병연대 제 35 대대와 보병연대 제 4 사단, 그리고 필리핀 해군 제 9 대대에 배치되었다. 즉, 2,600 명의 장교들과 사병으로 이루어진 3~4 개의 AFP 대대가 60 여개의 미 특수부대에 은신처와 보호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이는 군사작업 중 왜 AFP 가 ASG 보다 미군을 더

보살피는지를 설명해준다. 아마도 이는 AFP 에 사상자가 많은 이유 또한 설명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솔루의 기간군사시설 건설에서 우선시되는 것은 미군기지와 앞으로 주둔할 병력들을 지원하기 위한 몇천톤의 수용력을 자랑하는 튼튼한 부두(시아시, 마임빙, 파랑에)들과, 넓은 도로, 수자원 설비, 전기발생설비와 그 외 유사한 네트워크들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파타(필리핀에서 두 번째로 깊은 해연)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지는 미국의 해양활동은, 미군이 그곳에 군사기지를 세우려는 계획이 있음을 알게 해준다. 솔루를 통해서, 미국이 JI 를 핑계삼아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를 침공하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

또한, 필리핀 의회가 1991 년 US-RP 군 기지 동의를 부결시킨 이후 솔루에 미군기지가 있다면 이를 통해 쉽게 해당 지역과 남동아시아의 경제 투자를 보호할 수 있다. 솔루 열도에서 석유탐사를 진행하고 있는 미국의 다국적 기업 UNOCAL 를 보아도 이것이 증명된다. 심지어 솔루를 통해 미국이 Liguasan marsh 지역에서 벌어들이고 있는 37 백억달러의 가치가 있는 천연가스만큼의 이익을 얻을 수 있음이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게다가 술루는 이라크전에 이어 미국방부의 북한에 대한 전쟁 위협과 미군기지를 넓히기 위한 중요한 전략적 요소일 것이다. 현재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구 소련과 미국 남부에 6 만개명의 미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4. 이익을 위해 머물다

“발리카탄”이라 불리는 대규모 합동 군사훈련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미 전투부대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면 장기 주둔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들의 의도가 드러난다. 미 고위 관계자의 말을 따르면 “미군은 2002 년 이후에 움직일 것이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2002 년 6 월 1,200 명의 미 요원들이 동원된 Basilan 의 발리카탄 이후에 더 많은 부대가 전선에 배치되었고 합동 군사훈련이 더욱 자주 수행되었다.

“바야니한”(사회시민활동)을 수행한다는 명목으로, 미군은 그 일시성에도 불구하고 방문군협정(VFA)의 비호 아래 유례없는 “지속” 동의를 통해 지속적인 주둔을 정당화한다. 그들은 방문군협정을 기만하고 단순히 ASG 를

Bin Laden 의 Al-Qaeda 에 연루시킴으로써 민다나오 와 술루에서의 보다 강력하고 지속적인 미군 주둔을 가속화하고 있다.

즉, 이는 마치 “항구적 자유작전”(아프가니스탄 내전 당시 미국의 군사작전)이 국경 없는 테러와의 총체적 전쟁이자 체니 부통령이 말했듯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끝나지 않을” 것으로 여겨졌던 것처럼, 술루에 이익을 위해 주둔하는 미군을 데려오는 것 역시 아득한 일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미국이 대통령을 이용해 필리핀 의회를 무효화 할 수 있다면, 이미 유용하게 작동하고 있는 술루의 지역 행정부에서 발을 뺄 필요가 없는 것이다. 실제로, 기록에 의하면 2 구역에서 행정가와 의원 등 17 명의 술루 장들이 발리카한 0#의 자발적 협력자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올해는 그런 비판들을 단순히 돈으로 매수하여 밀어붙였다.

이런 식으로 90 년대 초반부터 이슬람교를 “해악”으로 악마화하기 시작한 미 정부는 1999 년에 이르러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을 새로운 해악 5 로 명백히 규정했다. 오늘날, 이러한 날조는 MNLF, MILF, ASG 등의 자유화 운동들을 테러조직으로 낙인 찍는 방식으로 지탱되고 있다. 그러므로 필리핀에서는 만약 당신이 공산주의자가 아니라면 테러리스트일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이는 소위 공산주의자와 테러리스트 공동체라 불리는 지역에 대한 그들의 폭격 출격을 정당화한다.

5. 실제 전투 방식

만약 미군부대가 이익을 위해 필리핀에 주둔하는 것이라면 그들은 관할 영토 밖의 실제 전투에도 연루되어 있을 것이라는 사실에는 반박의 여지가 없다. 미 특수부대에게 있어서 ASG 를 전쟁터로 몰아넣기 위해 완전무장으로 전투준비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들은 단지 패션쇼를 하기 위해 그곳에 있는 것일까? 사실, 민다나오와 술루 사이의 미국 증재는 단순한 훈련부터 본격적인 반 게릴라전까지 다양하다. 마찬가지로 USS Essex 가 제공할 수 있는 것 외에도 육지에 그런 조립 저장기지가 있다.

이는 RAND 주식회사의 계획에 따른 필수 요건이다. 칼릴자드가 이끄는 팀에서 나온 이 계획을 필리핀 사람들은 “빈번한 순환 배치”라고 부르는데, 이는 “기간군사시설 증강과 위기상황에 민첩한 조작이 가능하도록 기기들을 달구어놓는” 일이다(Tuazon 인용, 2002). 당국에서 배척받는 동안 MNLF 와

AFP 사이에서 거대 규모 전투가 있었던 2005 년 11 월 파타, 파랑, 마임빙, 시아시의 기간군사시설 공사는 미군의 실제 전투 참가에 있어 믿을만한 근거가 된다.

미군이 망갈리스와 인다난의 빈민가에서 세 개의 고무 보트에 올라타는 것이 우연히 목격되었는데, 이후 이들은 세 대의 군용 “허머” 트럭으로 옮겨왔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11 월의 전투에 이들이 참전했음을 증명한다. 올해, 한밤중에 거의 산산조각 난 치누크 헬기의 MNLF(모로민족해방전선)에 의한 폭격은 또 다른 증거이다. 2006 년 8 월 ASG 에 의한 매복 기습으로 부상을 입은 미국 군인들은 그들이 최전방에 있었다는 믿을만한 증거가 된다. 심지어 미 특수부대가 지난 2006 년 11 월 5 일 ASG 수색작업 동안 보병연대 제 33 대대와 함께 출격하는 것도 목도되었다.

사실, 2003 년 3 월 초에 보고된 푸틀 사령관의 문답에 따르면, 그가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한 질문이 “미국에도 공동묘지가 있습니까?”였다. 누군가가 그렇다고 대답하자, 푸틀은 “그 말은 그들도 역시 전쟁터에서 죽는다는 말이군요. 그렇다면 그들이 돌아와서 내가 Bud Dahu(다후 산; 미군이

남녀노소 불문, 약 1,600 여명을 무참히 학살한 사건)에서 돌아가신 우리 할아버지의 복수를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반격했다.

냉정히 이를 부인하는 것은 아무런 이득도 되지 않는다. 오히려 무슬림 방사모로의 분노를 돋우고 뻔뻔스럽게 진실을 훑치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6. ASG: 모반자인가, 강도인가, 테러리스트인가?

올해 초 진행한 연구에서, 우리는 MNLF 가 혁명적이라는 이유로 중단된 이후, 1976 년 트리폴리 협약을 맺으며 ASG 가 남은 것들을 모아 모반을 일으키는 운동부터 시작했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는 초반부에 왜 ASG 의 핵심 지휘자가 대부분 MNLF 에서 경험을 쌓은 투사들이었는지를 설명해 준다. 당시 ASG 프로젝트는 이슬람회의기구(Organization of Islamic Conference; OIC)의 조언에 따라 MNLF 가 자치노선을 밟기 시작했을 때 뒤를 이어 분리 노선을 계승했다.

그러나 이후, ASG 는 강도행위에 빠져들었다. 이러한 변화는 여전히 무기와 탄약, 늘어나는 전투원 유지비와 물자 구입을 위한 충분한 자금을 위한

행위라는 명목 하에 이루어졌다. 정부 요원들이 침투하고, 체포된 범죄조직 및 다른 폭력사범들의 석방요구를 위한 납치 등이 일어난 시기 또한 이러한 야만적 행위가 절정에 다다랐을 때였다. 마찬가지로, 그들이 받았어야 했던 대중의 지지기반이 무너진 시기도 바로 이 때이다. 이 모든 것들이 현재의 ASG 를 무어라 설명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다.

심지어 자원 신병들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싸울 수 있도록 도와준 공으로 국제구제재활기구(IRRO)의 자말 칼리파로부터 수령한 천만페소 역시 지금은 테러활동을 위한 자금줄의 하나가 되었다. ASG 와 IRRO 사이의 한 번에 성공한 거래는 현재 ASG 와 알카에다 사이에 공식적인 연계로서 확립되었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자말 칼리파(Jamal Khalifa)가 오사마 빈 라덴의 처남이었기 때문이다. 이는 자연스럽게 ASG 를 둘러싼 미스터리를 만들어내었다.

미국의 선전은 ASG 와 알카에다 사이의 연계를 선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묘사하는데 있어 성공을 거두었고 민다나오와 솔루 도처에 ASG 네트워크가 퍼졌다. 그 결과 JI 가 존재하는 곳에 미국이 존재하는 것도 정당화되었다. 이후 국무차관보인 캘리가 이러한 연계를 부정하였다. 그는 “1995 년과

96 년으로 돌아가보면 ASG 는 실로 알 카에다와 같이 행동하였다. 그러나 최근 그들이 접촉하고 있다는 어떤 사실도 나는 알아채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결과는 그것이 최초에(최근에 더욱 그러하지만) 할 작정이었던 것처럼 적어도 술루에서 ASG 는 보다 반란군 운동화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부진한 모든 요소들은 내부적으로 그리고 다른 곳에서 제거되었다. 그리고 그것의 계속되는 선전은 마침내 차이점을 제공했던 방사모로(Bangsamoro)운동의 표상을 가져왔다.

7. 결론

한 독자적인 조사보도에 따르면 남반구포커스(Focus on the Global South)의 허버트 도세나(Herbert Docena)는 민다나오와 술루섬에서 미국의 개입을 기록하기 위해 술루에 방문하였다. 그는 그의 질문에 대한 대답뿐만 아니라 무삭제 비디오 다큐멘터리까지도 만들 수 있었다. 이번 발표는 도세나의 활동을 지원하고 그것으로부터 많은 핵심쟁점들을 정리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다큐멘터리가 미군이 민다나오와 술루 도처에 어디에나

존재한다는 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게 만들었다고 믿는다. 그들은 거기에서 훈련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싸우고 있다. 그들은 떠나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거기에 머무는 것이 ASG 나 Ji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영원한 국익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피주둔국을 망가뜨릴 수 있는 비밀작전을 실시하고 필요하다면 권좌에서 끌어내리고 예측정부로 대체하는 동시에 개입은 최근 해방전선을 상대로 한 숨겨진 전쟁에 착수하는 것으로 한층 조정되었다.

그러나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개입에 이용한 구실이 아니다. ASG 는 스스로 혹은 다른 무장그룹들을 이용할 수 있다. 오히려 중국이나 북한 그리고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으로 상처를 받은 모두와 같은 경쟁상대로 반발이나 양갈음이 옮겨가고 있다. 당신이 저지르지 않는 범죄로 인해 목표물이 된 것과 같은 감정이다. 샘아저씨를 위해 죽은 동물의 심정과 같다.

그러나 우리를 안심케 하는 것은 과거 미제국이 와서 야만적인 대량학살을 자행했을 때 모로족이 필사적으로 싸워 살아남았다는 생각이다. 오늘날 미국은 돌아가 다시 한 번 모로족을 대량학살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다른

점은 모로콧이 더 이상 야만적이지 않다는 것이며 생존하는 것뿐만 아니라 복수를 할 것이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도쿄에서의 이번 회의를 통해 미국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길 바란다. 강력한 힘은 그리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우리 모두 베트남과 현재 이라크를 잊지 말아야겠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